

행복한 **책** 읽기

샌더L.길먼 외 '흡연의 문화사' <이마고 刊>

미리 밝혀두지만, 애연가에게 금연을 권할 생각은 없다. 나는 25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은 지 5년 됐다. 하지만 금연의 기억은 괴롭다. 금연을 다짐했을 때 '내가 담배를 다시 피우면 그는 아들이다.'를 되뇌었다. '그놈'은 나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자 내가 가장 미워하던 대상이었다.



하고 자기 절제를 촉진했다'고 믿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파티의 잔을 부딪치며, 침대의 열라 뒤에, 사나이의 우애와 영혼의 교감을 나누며, 열락의 여운을 위한 매개로 인류는 담배연기를 피워 올렸다.

흡연은 남성성과 폭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체 게바라는 쿠바의 산속에서 '게릴라 전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안은 담배 한 대, 고독한 전사의 돌도 없는 친구'라 했다. '영웅본색'에서 권총을 든 주인공이 담배를 피나듯 모습을

별 것도 아닌 일에 열 받은 나머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으며 찰간 잠았던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는데, 눈물이 났다. '그놈'의 아들이 된 기분이다. 불뚝은 내 의지력이 치사했다. OECD 국가 중 흡연을 1위라니, 담배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소식에 애연가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그들에게 이 책은 위안이 되어줄까. 담배 불빛 같은 붉은 색 표지에 크라운관형의 크기, 총 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

담배의 시대는 갔는가

량이지만 담배에 관한 학설, 정설, 속설, 잡설 등이 망라되어 있어 애연가들에게는 모처럼 흥미로운 독서가 될 수도 있겠다.

보고 흡연을 시작한 젊은이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흡연자들의 시대는 갔다. 흡연의 기호가 줄었으며 환경이 불편해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말 위에 올라탄 채 멋진 포즈로 담배를 피우던 카우보이 '말보로 맨'은 50년 동안 미국 광고계를 주름잡으며 '흡연은 멋있다'는 인식을 강요했지만, 이제는 구위를 풍기는 침울한 사내로 전락하고 말았다.

담배는 전염병도 아니고 약도 아닌, 하나의 기호이며 문화이다. 세계 각국의 역사학, 인류학, 문화학자 33명이 흡연을 역사학적, 분류학적, 문화사적, 경제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접근했다.

수천 년의 흡연 역사에서 의학적 해악을 거론한 것은 불과 50년도 안 된다. 오히려 흡연은 진통이나 소염, 안정 등의 의학적 용도로 시작하여 쾌락적 목적과 접목되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92세에 사망한 등소평은 장수비결 10가지 중 하나로 담배를 꼽았다.

프로이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담배부터 입에 물었다고 한다. '여송연은 내 연구능력을 극대화

한 발명품 관습이고 이어온 유행이다. 기호와 탐닉의 도구이며 중요한 동반이 수단이다. 담배는 인류와 동물 사이를 가르는 잣대이기도 하다. 담배 피우는 동물은 없다. 오직 사람만이 담배를 피운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지역작가들 세계무대 설수 있는 발판 마련할 것”

새 임기 시작한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미술관은 시민들 위해 존재... 정체성·접근성 문제 노력

나는 감독 아닌 선수... 관장보다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어



지난 2년간 광주시립미술관을 이끌어 온 황영성(72) 관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황 관장은 오는 2015년 3월16일까지 다시 한번 미술관 살림을 책임진다.

18일 오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황 관장은 임기 동안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개관 20주년을 맞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이는 황 관장이 취임 이후 가장 고민해 왔던 부분이자 숙제였다.

“미술관은 그 도시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립미술관은 그동안 광주만의 색깔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는 민중미술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포석을 다져왔다.”

미술관의 정체성은 컬렉션이 결정한다. 그동안 시립미술관의 컬렉션에도 변화가 생겼다. 황재형, 홍성담, 이종구씨 등 현실참여계열 작가들의 작품과 허백련, 김홍식, 진양욱, 강용운씨 등 호남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확보에 노력

한 것이다.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 2300여 점을 망라한 하정웅 컬렉션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정웅 컬렉션은 다음달부터 2년간 전국 국립미술관 8곳을 돌면서 순회전시할 하게 된다.

황 관장이 정체성과 함께 고민한 것은 미술관의 높은 문턱과 접근성 문제였다. 시립미술관이 지난 2007년 10월 현재 북구 중외공원으로 옮겨지면서 시민들이 찾기가 불편해졌지만 이를 위한 대안은 없었다.

“미술관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술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취임 때만 해도 택시 기사조차도 미술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유일한 출입구인 중외공원 정문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표지판을 정비하고 비엔날레에서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방했다. 또 광주주변회관,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이 연계한 문화예술 클러스터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황 관장은 지역 작가들에게 중외공원 세계무대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작가들을 광주에만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해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미술관의 중요한 소임이다. 아직은 우리가 해외 미술관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북경 금일미술관, 허난성 미술관과 교류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때문이다.”

시립미술관의 지원을 받은 박소빈, 신태훈, 윤일권씨는 이미 중국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광주지역 작가들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교류전을 연다. 지난해 서울 사간동에 개관한 ‘갤러리 GMA’에서 최근 전시를 열었던 전현숙 작가는 전시 이후 서울 유명 화랑과 해외 아트페어 참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다.

황 관장은 미술관장으로서 자신의 처신을 문제삼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주위에서 내가 관장직을 이용해 전시를 한다는 말도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 관장이 되고 예정돼 있던 국내 전시회는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해외 전시들은 몇년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관장을 떠나 작가 개인의 신뢰가 달린 문제다. 또 나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다. 관장보다는 화가 그리고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 미술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중미술가 **홍성담**, 오늘 메이홀서 강연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홍성담씨가 20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메이홀에서 강연을 한다. 홍씨는 이날 ‘광주 정신과 예술 운동’을 주제로 강연과 좌담을 진행한다.



신안 출신인 홍씨는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해왔으며 지난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중해방운동사’ 필름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문의 010-6791-805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광산구 혜음마루 선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혜음마루 작은도서관과 목포 부영 작은도서관이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두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두 도서관을 포함해 전국 4곳으로 지원금을 받아 리모델링과 도서, 디지털 자료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한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소외계층 주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읍성, 사이버공간에 세워진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5년까지 읍성 복원사업 진행

조선시대 행정 사무를 맡아보던 광주읍성은 고려말에 축성되었다가 1900년대 초반 그 기능을 잃었다. 이후 성벽이 허물어 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시청사거리~황금동사거리~중앙로~중앙초등학교~제봉로~구노동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광주읍성의 흔적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읍성내에 존재했던 고려시대 대항사 유물도 추정되는 재명성등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성벽바위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동문입구 석장승은 전남대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등 곳곳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다.

500년 이상 광주와 함께 해온 광주읍성 터를 되살리는 조사 연구가 진행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

인·이하 교류재단)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15년까지 3년 계획으로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광주읍성과 당시 민중들의 삶, 민속 자료를 조사·발굴해 웹,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이버 체험관 등 가상공간에 복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광주읍성에 대한 시대별 문서, 문헌, 간행물 조사·연구 ▲성곽, 4대문, 객사 등 읍성 안과 밖의 공간구성 조사·연구 ▲연화, 제례, 의례 등 공공행사와 소송, 교육 등 민중생활 연구 ▲성곽 철거 후 변화 등을 목록화 할 예정이다.

교류재단은 이 자료를 광주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박물관 ‘동문석장승’

광주읍성은 4대문이 있었으며 전남역고 후문 근처에 동문(서원문), 황금동사거리 일대에 서문(광리문), 광산동구시청 사거리에 남문(진남문), 총장파출소 앞에 북문(공북문)이 있었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모임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